



12일부터 14일까지 밀알의 밤 행사가 열렸다. 김창옥 교수는 이 시대 최고의 소통 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득한 가슴이 시원해지는 강연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웃음을 유발하다가도 감동과 공감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최고의 강연이었다.



전도와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LA찬양교회에서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김창옥 교수 “행복 위해선, 좋은 모국어 가진 사람 만나야”

2018 밀알의밤, 김창옥 교수와 정수진 자매 게스트로 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창옥아, 네, 엄마, ‘엄마 죽으면 땅에 묻지마, 산과 바다에 뿌려줘.’ 엄마는 아버지에게 시집과 살면서 너무 답답해 하셨다. 아버지는 밥통 안에 있는 밥을 드시지 않으신다.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도 안 드신다. 매끼 새로 한 밥과 반찬이 아니면 밥을 안 드신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뼈가루가 되어서라도 자유롭고 싶으셨던 거다.”

“일주일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창옥아, 엄마 100살까지 살까?’ 어머니의 계획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뼈가루가 아닌 몸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으신 거다. 한 엄마의 아들로서 엄마와의 통화 이후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알장에인장학복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2018년 남가주 밀알의밤이 ‘소통(골로새서 3:17)’이란 주제로 10월 12일(금), 13일(토), 14일(주일) 사흘 동안 ANC온누리교회

와 남가주새누리교회, 베델교회에서 각각 개최됐다. 올해 밀알의 밤에는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강사로 서 인생의 핵심이자 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의 소통에 관해 강연했다.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린 밀알의 밤은 남가주새누리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막을 열었고 최세형 목사(행정 및 양무리 사역 담당)가 인사말을 전했다. 최 목사는 히 10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사는가’의 중요성을 전했다.

사랑의캠프 영상 시청에 이어 밀알수어찬양단의 공연이 있었다. 이번 밀알의 밤을 위해 게스트로 초청된 피아니스트 정수진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며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연주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정수진 자매와 동행한 어머니 김신덕 권사는 “자폐증의 주된 증상은 소통이 안되는

것이다. 어릴 때는 또래들과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졌다. 모든 장애아 부모들의 고민인, ‘이 아이가 마지막에 남겨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다. 하루도 아닌 단 몇분 간이라도 이 아이보다 더 살다가는 것이 소원이다. 끝까지 수진이를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 권사는 “10년 전 수진이가 피아니스트로 첫 출발을 밀알의 밤에서 했다. 수진이가 자폐 판정을 받은 날 당일보다 하루 하루를 보내며 더 힘들었다. 유치원에 보내니 장래희망을 물어보는데, ‘오늘 하루도 암담한데 어떻게 한참 후인 미래를 생각하나,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밀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음을 오랜 세월을 지나 깨닫게 되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 계속

“전도, 이웃에게 다가갈 접촉점 찾아 많이 심어야”

전도 전략과 방법을 소개하는 ‘전도와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LA찬양교회(김성대 목사)에서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대구 목자교회에서 박기준 담임목사와 이해란 사모 및 임직자들이 방문에 이날 세미나를 이끌었다. 목자교회에서 소개하는 전도방법은 각 교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전도시스템으로, 교회 측에 따르면 오직 불신자 전도로 90% 이상의 새가족이 정착하고 있고, 체계적인 양육과 시스템을 통해 새가족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다. 박기준 목사는 강의에서 “과거 노방에서 외치는 전도보다는, 전도받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금은 토스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경험을 나눴다.

또한 “전도팀을 구성할때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회자들도 엄청 심어야 한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때 생활비도 없이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이민생활 아등바

등 한다고 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에서 전도를 시도하지만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전도인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영혼구원이다. 사람들을 통해 온갖 비방을 들었었는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을 했다.

박 목사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번째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신발이 닳도록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410평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이어 1300여평의 교회를 건축하게 된 일과 사람 때문에 속썩이지 않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현장전도 아이템, 손마사지 네일아트 등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웃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복음부터 전하지 말고, 먼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잡아 당기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나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목회자 세미나

낮은 자존감으로 30명 목회자가 꿈이었던 이영환 목사가 35년 목회사역에 걸쳐 일구어낸 “말씀과 기도훈련 세미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회복해 줍니다.

일시: 2018. 11. 19(월)~20(화)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체플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목사)

강의시간: 19(월) 9am~12pm, 2~4pm, 7~9pm
 20(화) 9am~12pm, 2~4pm
대상: 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록비: \$50(교재, 식사포함)
미자립교회 목회자 \$30
문의: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송종호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이영환 목사
 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저자



이날 4명의 권사 임직자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았다.

할렐루야한인교회 40주년 감사 및 권사임직예배 드려 “요셉과 같이 신뢰를 얻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할렐루야한인교회(송재호 목사)가 창립 40주년 감사 및 권사임직예배를 14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사회에 송재호 목사, 찬송, 대표기도에 황보철 목사, 성경봉독, 봉헌찬송, 봉헌기도에 안상희 목사(게이트웨이 세미너리 언어부 디렉터) 설교에 한중호 목사(증경 미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장), 임직자 서약, 공표, 안수식, 축사에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격려사에 한덕수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 창립목사), 축가에 칼빈 박 집사(전 캘리포니아 베데스다 대학 음악과 교수), 임직패 및 위임패 증정, 인사 및 광고, 찬양, 축도에 한덕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뢰지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중호牧사는 “요셉은 형들로부터 애굽 상인에게 팔리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신하로 있으면서도 주인의 신뢰를 잃지 않았으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왕의 꿈을 풀게 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며 “요셉이 비천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했다. 오늘 임직하는 직분자들과 이 교회도 서로간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헤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4명의 권사 임직자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출발을 알렸다. 할렐루야한인교회는 남가주 LA 동부지역 월넷시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으로 1978년 7월 첫 주일에 한덕수 목사에 의해 시작했으며, 1985년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고 1995년에 체육관, 선교관, 도서관을 건축하며 성장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적부흥을 꿈꾸며 제자된 삶을 실천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헤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4명의 권사 임직자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출발을 알렸다. 할렐루야한인교회는 남가주 LA 동부지역 월넷시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으로 1978년 7월 첫 주일에 한덕수 목사에 의해 시작했으며, 1985년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고 1995년에 체육관, 선교관, 도서관을 건축하며 성장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적부흥을 꿈꾸며 제자된 삶을 실천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헤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인적인 변화, 치유, 성숙을 경험해”



GIFT, 새사람 전인치유 제 9차 힐링캠프가 9월 29일, 10월 6일 Gift Center에서 개최됐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대표 리디아 전 박사)은 “새사람 전인치유 제 9차 힐링캠프”를 지난 달 29일과 10월 6일 양일간 플러튼에 위치한 Gift Center에서 개최했다. 캠프는 의학 전문의로서, 관계심리학과 영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조셉 전 의

박사(조셉메디컬그룹 원장)와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직접 진행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이번주 토요일 10월 13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KAMT(King's Army Medics Training) 위생병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조셉 전(전달훈) 박사는 MIT와 UCLA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으며 이후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관계심리학, 탈북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리디아 전 박사는 USC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홈페이지: <http://giftheal.com>

1면 '김창욱 교수' 에서 계속

코이라는 관상용 물고기가 있다.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 두면 5~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연못에 넣으면 15~25cm까지, 큰 강물에 방류하면 90~120cm까지 자란다. 노는 물에 따라서 피라미가 아주 큰 물고기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무한대로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 밖에 없다. 피아노가 수진이의 전부다”라고 말했다.

“자폐 진단을 받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 동안 망망대해의 작은 조각배를 탄 것 같았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어 메인 게스트로 선 김창욱 교수는 인생의 핵심, 관계의 핵심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대해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 대비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한다. 이걸 누가 볼까? 4~60대, 와이프를 떠나 산에 가서 살고 싶은 남자들이다.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된다고 나온다. 여자의 언어를 이해 못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남자들이 많다.”

“관계의 핵심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나와 맞는 지 모르고 결혼을 해버린 것. 특히 남자들은 ‘뭣이 중한 지’를 모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머릿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이성적 판단을 못 한다.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3개월 혹은 3년 까지는 여성을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시간이 지나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원래 자기의 말투, 즉 모국어가 나온다.”

“뇌는 똑 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면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가 ‘뭘 하러 가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피곤해’다. 남자는 이성의 매력이 무뎠던 여성에게는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말투가 나온다. 따라서 좋은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모국어는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의 언어이다. 모국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자가 커뮤니케이션 스

킬이 없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 ‘그래 가을인데 옷이라도 한벌 사입어야 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가 옷인데 무슨 옷이 없어, 살려서 그렇지. 가서 뛰어.’라고 말한다. 만약 아내가 핑크색 옷과 보라색 옷 중에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냐고 물으면, 잘 대답해야 한다. 이때 완벽한 대답이 있다. ‘보라색은 어려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인다.’ 힘들지만 그냥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야, 빨리 사라고~지금 몇 시간째야’라고 말하면 아내들은 또 생각한다. ‘아.이 남자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구나.다른 오빠가 필요하구나.’”

또한 김 교수는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올리려 하는 세태를 설명하며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인간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한다.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들은 학벌이나 재산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자존감은 외적인 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존중해 인지는 능력이다. 자존감이 있으면 힘든 날이 오면 나를 가꾼다. 반대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자존심을 올리려 한다.”

장애인과 함께 꿈과 소망, 믿음을 나누기 위해 1997년 1월 19일 설립된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장애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복지 사업을 비롯해, 밀알정기모임, 사랑의 교실, 장학복지기금 모금, 밀알의 밤, 월간 <밀알&세계> 발행, 밀알수어교실, 사랑의캠프 등의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밀알의 밤은 매년 가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선교를 위한 문화후원 행사로 공연수의 전액은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2001년 시작된 밀알장애인복지기금은 매년 장애인에게 지급되어 왔으며, 작년에는 95명에게 총 \$138,600을, 올해는 88명에게 총 \$136,800을 수여했으며 총 누적금액은 \$2,233,800에 이른다. 또한 밀알장애인 선교단은 2019년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수혜대상은 장학생(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꿈나무 장학생이며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금)까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전화: 562-229-0001/ smilal@milalmission.com)로 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성 · 광 · 장 · 로 · 교 · 회



이철훈 담임목사



성광장로교회
 SUNGKWANG PRESBYTERIAN CHURCH

이철훈 목사 취임 감사 찬양 예배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성광장로교회”는 이철훈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두 분의 찬양사역자와 함께 ‘2인 2색 찬양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일시 10월 20일(토) 오후 7:00 이준석 선교사
 10월 21일(주일) 오후 2:00 장종택 목사

장소 성광장로교회 1359 W. 24th St., LA, CA90007

문의 T.(323)732-3440



이준석 선교사
 일반 찬양선교사



장종택 목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은유야 아버야의 저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개인적 이득 취하지 않겠다”

한길교회 14일 박찬섭 목사 위임예배, 19일부터 21일까지 가을부흥회

10월 14일(주일) 오후 5시 한길교회는 본당에서 박찬섭 담임 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전권위원장인 조형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위임예배는 한길교회의 조이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문을 열고, 이상현 장로가 대표기도를 했다. 한길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에 이어서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장로교회, PCA서남노회장)가 설교했다.

이어서 위임서약과 위임공포 받은 후 정공필 목사가 위임패를 전달했다. 나성남포교회 한성운 목사가 교인을 위해 권면하고 PCA증경노회장인 함광훈 목사가 위임 목사를 위해 권면했다.

함 목사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 희생이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인가.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희생이 되는 목회를 하길 바란다.” “한길교회는 좋은 교회로 자긍심을

을 갖고 목회하길 바란다.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임을 마음에 품고 무한한 자긍심 품고 목회하는 주의 종되길 바란다. 요즘 목회의 열정 없는 목사가 많고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이 회복하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박찬섭 목사는 담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길교회 목양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전공필 목사님 이하 모든 전권위원회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노회가 얼마나 우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를 불러주신 한길교회 당회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낮 기도해주신 가족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회를 잘 감당해 나가고자 한다. 겸손과 눈물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하여 하



지난 14일 주일 오후 5시에 한길교회는 박찬섭 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성실함과 자원함으로 목양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겠다.”

김지성 목사(글로발선교교회)는 “기도응답이 됐으니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는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는가. 인격도 좋으시고 영성도 좋으

시고 젊으신 분이요. 또 다른 축하의 이유가 있다. 교회의 부흥 대형이 형성되어서 축하받아야 한다”고 축하했다.

김임동 장로는 “당회와 청빙위원을 믿어주신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위임예배는 박찬섭 목사의 축도

로 마무리됐다.

박목사는한세대학교에서선교학, 비블리컬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구약학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2011년 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이승혜 사모와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이 교회는 또한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주제로 가을 부흥회를 연다. 주디 한 기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

굿프렌즈교회 창립기념예배 드려, “가장 모범적인 교회되길”



지난 14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굿프렌즈교회는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0월 14일(주일) 오후 5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굿프렌즈교회(Good Friends Evangelical

Church, 담임 양홍규 목사)는 8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수교미주성

결교회(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가 주관한 이날 예배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양홍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규진 장로(지방회 장로부회장)의 기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동문들의 특별찬송에 이어 지방회장인 오병의 목사(남가주벤엘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강정운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의 봉헌특송 이후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봉헌기도로 마무리됐다.

2부 창립예식 및 위임식은 강양규 목사(남가주세언약교회)가 인도했고 지방회장의 창립서약과 창립선언, 위임자 소개, 위임서약 및 공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권면과 축사, 양홍규 목사의 답사 및 인사에 이어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나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설교에 나선 오병의 목사(남가주

벤엘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굿프렌즈교회를 담임하는 양홍규 목사는 예성 총회신학교와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M.Div) 및 동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한길생명교회 부목사, 캘리포니아 백석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주일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에 드리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교회, 다민족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선교하는 교회, 믿는 이들을 제자화하여 사역하는 교회를 3대 비전으로 삼고 있다.

문의 714-852-8485 주소 : 8856 Walker St, Cypress, CA 90630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납득 드리겠습니까. •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85>

터키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심을 깨닫다(1)

필자는 2007년 터키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11년간 매년 그 땅을 밟으며 단기선교와 선교사들 네트워크의 사역을 해 오고 있다. 필자의 첫 터키선교는 그해 2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안탈리아(Antalya)에서 있었던 "연합중보기도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한국과 미주 그리고 현재의 한인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터키와 이슬람권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때 강사로 말씀을 전한 분이 샘물교회 담임이었던 박은조 목사였다. 안탈리아의 로마 원형 경기장 한 복판에서 "터키와 이슬람권의 선교부흥을 위해 뜨거운 순교의 피가 요구 된다"는 말씀하셨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때는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 예언적 말씀에 모두가 '아멘'했다. 그때 그 기도회의 찬양 인도팀으로 참여했던 '부흥팀'(고형원 전도사)이 "십자가의 길"을 찬양했다. 그렇게 큰 은혜와 기쁨을 안고 모두는 돌아 왔다. 그리고 그 다음달 4월 터키의 말라티야(Malatya)에서 독일인 틸만선교사와 터키인 네지티목사 그리고 우리 형제가 과격이슬람 청년들의 칼날 앞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2개월 후 한국 샘물교회 단기의료선교팀들이 아프카니스탄 사역 중 탈레반에 피납당하고 그중 두 분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선교 전문가들조차 '이슬람 선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이슬람 선교를 부정하는 이때, 누가 무어라 비난해도 이제껏 끈기있게 지탱하고 있는 몇몇 선교단체들이 있어 감사하다. 박은조 목사도 자기의 교우들이 순교한 그 땅을 매년 밟으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다. 그는 진짜 군사였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권 나라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필자는 매년 그 현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흥을 눈으로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여 돌아온다.

터키는 물론 이슬람권 전역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장기선교사뿐 아니라, 최전방 전문인 사역자들, 그리고 대학생 중반기 선교사역자들, 단기선교팀들이 연합으로 영적 동맹을 이루고 있다. 터키는 이제 이스탄불, 이즈밀, 앙카라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계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이제 미국의 항공노선보다 터키의 항공 노선이 더 많은 나라들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그 땅으로 한인선교사는 물론 세계의 선교사들이 운집하고 있다. 어느 선교단체는 지난 6년간 매년 수천 명의 현지인과 아랍권 청년 크리스천들과 한인 청년들,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캠프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터키는 선교의 중심국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미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그 땅을 향하여 크게 뛰어야 할 때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세네카의 행복론이 주는 교훈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라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는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수사학, 변론술, 웅변술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지만 왕의 미움을 받아 8년간의 유배생활을 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코르시카섬에서 8년간의 유배생활 마치고 돌아 온 세네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황제 클라우디우스 양아들 네로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가정교사의 인연으로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자 보좌역으로 왕의 통치를 돕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폭정에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독서와 집필에 몰두합니다.

네로 폭정에 반대했던 세네카는 황제의 미움을 받다가 네로의 암살계획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황제 네로는 옛 스승 세네카에게 즉시 자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 네로의 명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네카는 키케로와 함께 로마를 대표하는 철인입니다. 그가 남긴 행복론은 곧 살피고 불어거스틴의 행복론과 더불어 로마 시대 양대 행복론입니다. 물론 세네카 행복론은 어거스틴 행복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네카 행복론을 정리합니다.

첫째 세네카는 올바른 기대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이 불행의 출발입니다. 세네카는 행복을 위해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네카는 소소한 만족과 기쁨을 통한 행복을 목표로 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황홀한 쾌락의 절정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라고 가르칩니다. 미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미덕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소유와 권력을 자랑해도 미개인이요 야만인의 삶이요, 미덕이 없는 삶은 금수와 유사한 삶입니다. 미덕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넷째 세네카는 물질에 대한 자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네카는 욕망의 관리를 말합니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미덕을 실천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네카에 의하면 부의 노예가 아닌 부의 주인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부유함은 선이 아니지만 지혜로운 부유함은 선과 미덕을 위한 통로입니다.

세네카의 행복론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깊은 사변을 통해서 숙성된 그의 행복관은 지금 읽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네카의 행복론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네카의 행복은 땅의 행복을 말하고 바울의 행복은 하늘 행복입니다. 세네카의 행복이 참나적 행복이라면 바울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세네카의 깊은 사색에 근거한 행복론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리된 바울의 행복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수도 삶의 불편함도 고통도 극복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행복)하고 기뻐(행복)하리라(빌1:18).

시인들과 작곡가들이 모여 새 창작 성가곡 선보인다

오는 28일 세리토스 장로교회서, "남가주 창작성가의 밤"



오는 10월 28일 주일 오후 6시에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제 18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이 남가주 한인 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열린다.

이 행사는 LA기독교 시인협회와 미주 한인 작곡가들이 협력해 새롭게 창작한 곡을 선정된 합창단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음악회다. 남가주 한인교회 음악협회는 이를 위해 1년의 기획과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본 성가제에 참여한 시인으로는 고영준, 김주경, 김학청, 방동섭, 석정희, 오애숙, 오영례, 정솔로몬, 정정숙, 지인식과 작곡가로는 권희원, 김재숙, 노용진, 백경환, 백낙금, 서병호, 이현정, 이혜경, 이호준, 전현미, 조성원, 지성심, 황광선, 황현정이 있으며, Choraleum Mission Choir(이경

원), GnP Choir(박신실), Grand Festival Choir(강민석), LACC(이정욱), Orange Mission Choir(장진영), 감사한인교회 찬양대(강민석)가 연주 합창단으로 참여한다.

문의는 전현미 회장 (310-381-9835) 이현정 작곡분과장 (240-506-1625)에게 하면 된다.

주소: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문학 특강 안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강사** : 강태광 (목사, 시인, 시조인)
시집 :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 아름 안고
수필집 :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와 다수 언론지에 고정 칼럼 기고
현)기독교일보 행복칼럼, 침례신문 문학칼럼
- **제목** : 문학에서 만나는 행복 모색
- 붓세에서 움베르토 에코까지
-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로텍스 호텔(Rotex Hot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고문 : 김문희 선생
회장 : 정지윤 T.(213)249-0771
부회장 : 김상분, 허철
사무국장 : 조애영

섬김으로 받은 복

열왕기하 8: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열왕기하 8:1-6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라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소임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집집마다 심방을 하면서 양떼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시종과 함께 양의 가죽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에 지고 축회 전도 심방을 다닐 때에 수넬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넬이라는 곳은 다불산 밑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서 80km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한 귀부인을 만나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왕하4:8).

간권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권했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자기 집에 방문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고 예배도 드리고 떠날 때에 그 여인은 이 근처로 방문목회를 위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집에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도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

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왕하4:9-10)"했습니다.

이때 집 안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일에 남편이 쾌히 승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 여인의 신앙 인격과 신뢰할만한 행동, 예절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곳에 들렀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지극정성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 엘리사가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 그 여인의 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 그 여인을 오라해서 흑시 왕이나 장관에게 무슨 무탁을 하고 해결받을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때라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우리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하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년 돌이 되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당황스럽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내년 돌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아들이 자랐다고 했으니 3~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반나절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때 수넬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2층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에 눕히고는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열왕기하 4:28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 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지팡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의 뒤를 따라 그 여인과 함께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얹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하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

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엘리사의 양떼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넬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라"고 합니다. 이 백성의 죄 값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는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약간의 돈을 챙겨 엘리사가 떠나라고 한 블레셋 땅으로 떠났습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났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수넬 여인은 자신의 전토를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적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수넬 여인이 이같은 상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껏 말한 그 여인이 바

로 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껏 게하시를 통해 들은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하였습니다.

이 수넬 여인은 어째서 이런 요긴한 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9에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한 것처럼 엘리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댔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살리시는 회복의 은혜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뜻을 좇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요긴하고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목자라면 그를 통하여 양떼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게 하셔서 결과가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그 인생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 조건으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수넬 여인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2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오직예수선교교회
- **주소** : 3407 6th St. #103., LA, CA 90020
- **등록비** : \$20(필수)

문의 : 총무 양경선 목사 T.(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공천 공고

▪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이력서, 교단 소속 증명서, 연방정부의 비영리 단체 등록 교회 증명서, 안수 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상회가 발행하는 현 교회 시무 확인서 각 1통씩, 30인이상 회원 추천인 명단(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시무 목사), 금월 후보를 후보 등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천금 없음, 회장과 수석 부회장 동일함.

▪ 입후보 제출 서류 마감: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

▪ 제출 주소: 3407 6th St. #103., LA, CA 90020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샘 신 목사 T.(213)215-6029

총무: 양경선 목사 T.(213)255-1725

sammoolyang@gmail.com

openstewardship.com

“함께해요!
행복나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2018년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

openstewardship.com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사랑이야기' 초청 기념음악회

사랑이야기 초청 음악회, 감동 선사

창립 3주년을 맞는 아틀란타벤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가 지난 7일(주일) '주님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CCM 그룹 '사랑이야기' 초청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랑이야기 김현중, 김재중 두 형제는 아름다운 화음과 편안한 음색,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로 좌중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사랑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 1년의 반은 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 교단 순회 선교사이기도 하다.

이날 음악회에서 이들은 대표곡 '주님의 숲'을 비롯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다. 김현중 형제는 "주님의 숲이 되는 교회가 되어 힘든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틀란타벤엘교회는 오는 10월 26-28일(금-주일)까지 송현성결교회 조광성 목사 초청 부흥집회, '성숙한 삶으로의 초대'를 개최한다. 교회는 영적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애틀랜타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는 집회가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앤더슨 김 기자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 받은 임영희 목사

하나님이기뻐하시는교회 첫 임직자 세위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 임규영 원로 목사 추대 및 임영희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지난 7일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 제 2대 담임 임영희 목사는 "임규영 원로 목사님이 걸었던 믿음과 헌신, 사랑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말보다 행함으로 보여주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오로지 기도와 눈물로 목회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모두 함께 걸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가지"며 임규영 원로 목사와 성도들이 세워 온 새생명장로교회의 선교 비전과 목회관을 이어갈 것을 내비쳤다. 임영희 목사는 이어 "자신에게는 세 분의 임씨 성을 가진 아버지가 계시는데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인 임동진 목사님, 둘째는 믿음과 신앙의 아버지인 임규영 목사님, 셋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해 청중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도 했다.

임규영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3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부족한 사람에게 주위에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과분한 사랑에 감사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영희 목사의 부친인 임동진 목사(열린문교회 원로)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5절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처럼 목회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므로, 매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성경의 소리와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성도와 함께 울고 웃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풀원 기자

동지선교회 후원의 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다

시애틀 기독일보, 라디오 한국, 코웬방송, 미주 기독신문이 후원하고 동지선교회(대표이경호 목사)가 주관한 제 12주년 동지선교회 후원의 밤이 지난 6일, 웨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있었다. 후원의 밤 행사는 옥현희 이사의 사회로 조이 앙상블(Joy Ensemble)의 현악 4중주(복의근원 강림하사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고향의 봄), 백우현 장로의 테너솔로(신자 되기 원합니다), 소프라노 솔로에 권수현씨(친애하는 후자님, 꽃 파는 소녀), 테너 솔로에 박상영씨(서로 사랑하자,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김범수씨가 지휘하는 워싱턴 챔버 앙상블(주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행복을 주는 사람)의 연주와 동지선교회 사업보고 및 후원금 모금으로 진행됐다. 이날 후원의 밤은 그동안의 동지선교회 사역을 돌아 보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후원자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음악 무대는 많은 이들로부터 갈채와 힐링을 선사했으며, 그동안 동지선교회와 함께 노숙자 사역에 힘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동지선교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노숙자들이 더 이상 노숙생활을 지속하지 않도록 렌트비 지원사업과 노숙자들의 병원 퇴원 이후 재활과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응급 모델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동지선교회의 렌트비 지원 사업과 모델 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노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타코마와 레이크우드, 린우드, 에드몬즈 지역에서 동지밥상을 열고 홈리스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 동지선교회는 "홈리스들에게 매주 나누어주는 일상 용품 및 난여 숙우, 양말, 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 일회용 샴푸와 린스, 담요와 자켓,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5) 특별히 담요와 따뜻한 옷이 많이 필요하다"며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체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동지선교회는 연방정부의 501C(3)를 소지한 비영리 단체로서 후원금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수표는 Nest Mission로 기입하면 된다. 동지선교회, PO BOX #5782 Lynnwood, WA 98046 문의 : 253) 732-3929 이경호 목사

교회 & 선교 교회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주일예배 오후 2:22 오전 5:30(월-금)
주중모임 - 비결교회(7)와 비결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복음화하여, 이단기정음치로 하여,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연합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찬양예배 오후 1:00 목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토)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0-7240 Email: 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304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가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운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영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매일)예배 (스캐비슬)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영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6: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홀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창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친교의 힘, 바른교회관의 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다)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김성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명성교회, 제103회 총회 결의 뒤집으려 한다면...”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 열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노치준 목사, 조건호 장로, 임희국 교수

통합목회자연대에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를 1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재판국이 총회 결의대로 명성교회 청빙유효판결 재심에 대한 첫 모임을 가진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3회 총회의 주요 결의와 그 의미’를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을 조건호 장로(소마교회, 변호사), ‘제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를 임희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가 각각 발표했다.

노치준牧사는 “이번 총회에서는 제102회 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과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헌법위원회에서 제의한 개헌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아울러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근거해 진행된 총회재판국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 102회 회기 재판관원들을 모두 불신임해 물러가게 했으며, 새로이 구성된 재판국이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관련 재판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목사는 이 결의들이 가진 의미로 먼저 ‘사회적 공신력의 제고’를 꼽으면서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온 수익이 왜 목회자와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분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러한 왜곡된 수익배분이 담임목사에 이어 그 자녀들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이 반발은 교회의 규모와 수익 배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상승이 점점 어려워지는 신극족제 사회를 살고 있기에, 세습이나 유산과 관련해 더욱 많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것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근저”라며 “한국교회는 이 분노와 좌절감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대행교회의 힘과 권력 문제’에 대해 이대용 기자

총신대 이사회, 김영우 총장 직위해제



총신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동욱 교수)가 13일 이사회를 갖고, 새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총장에 김광열 교수, 신학대학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에 이상원 교수, 목회신학전문대학원 포함 6개 대학 원장에 정희영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다.

김진영 기자



©THE CHRISTIAN POST

조엘 오스틴 “내가 ‘변영 복음’ 설교자? 그렇지 않다”

인터뷰에서 “빌리 그래함 규칙” 따른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수 천 명이 운집한 집회 ‘희망의 밤’을 앞두고 조엘 오스틴 목사와 만나 인터뷰를 했다. 최근 신간 ‘넥스트 레벨 싱킹’(Next Level Thinking)을 발표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목회자의 책임과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목회자나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당신은 ‘빌리 그래함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이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따르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일을 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주목받는 목회자로서 외로움으로 인해 고 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목회자의 자살을 보며 어떤 조언을 하 겠나?

“나는 건강한 가족과 친구들을 가진 축 복을 받아서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다. 목회자는 바쁘고 항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살 피주고 다른 친구들을 찾고 연락 할 시간 을 갖도록 격려하고 싶다.”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얼마나 자주 상 담하는가?

“거의 일주일 내내 대화한다. 매 달마다 대화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항상 많은 사 람들과 접촉하고, 서로를 격려한다.”

뉴욕시,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공식 인정



©이영진 교수 제공

미국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 생신고서 작성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1일(현지시 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또는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법안 을 찬성 41, 반대 6으로 통과시키고, 시장 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었다. 블라지오 시 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법안 이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뉴 욕시민들, 특별히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 을 가진 주민들은 더욱 힘있게 될 것이다.

신약학자 스캇 맥나잇(Scot McKnight)은 빌 하이벨스 목사가 월로우크릭 교회에서 너무 많은 자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레이쿠우드 역시 비종교적 복음주의 메가 처치인데 레이쿠우드를 감독하는 장로회 가 있는가?

“이사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다. 우리는 항상 만남을 가진다.”

당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당신이 목회자 보다 ‘강연가’ 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동기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절반은 교회에서 자랐거나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른 은사가 있다. 훌륭한 선생님인 친구가 있으며, 예언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항상 낙관적이 었고 격려하는 성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칭 할 때 ‘변영의 복음’ 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변 영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 지 못한다. 나는 복음이 하나 뿐이라고 생 각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 건이 복음이다. 변영을 생각할 때 돈을 구 하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렇지 않다. 변영은 건강하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 구서를 지불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재정 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변 영’에 대해 듣고 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이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또 뉴욕시는 LGBTQ(레즈비언, 게이, 양 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공동체의 권리 를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스스로의 정 체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모두가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뉴욕시민들이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이유다. 뉴욕시 는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지켜보며 지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블라지오 시장의 부인 쉐레인 맥 크레인 여사도 “처음으로 모든 뉴욕시민 들이 현실의 정체성을 반영한 출생신 고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 공식 기록의 성별 란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기쁨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갈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사회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문헌말씀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토요일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z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청년부 수요성경강의도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포르노·비디오 게임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
 미국 대형교회 목사, 싱글들에게 조언



©LIVE,ERL.C.COM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멀티사이트 메가처치인 패션 시티 처치의 벤 스튜어트 목사가 크리스천 싱글들에게 “포르노 그라피와 비디오 게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에서 열린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 컨퍼런스에서 스튜어트 목사는 “21세가 될 무렵의 평균적인 청년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 약 1만 시간을 보낸다.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한 시간은 그 절반이 못된다. 청년들에게 현실 세계를 벗어나 환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 싱글들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TV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스크린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탈선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적인 미국인은 매일 7.5시간 동안 화면을 보며 보낸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화면에서 보며 자신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시간을 주셨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목사는 포르노 그라피의 유행과 그 해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결혼 인구의 감소에 기여하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젊은 세대가 포르노 그라피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본 모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르노 그라피는) 배타적인 성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심으며 사랑과 애정, 결혼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터키, 구금 중이던 앤드류 브런슨 목사 석방



앤드류 브런슨 목사(가운데) ©Tony Perkins twitter

터키 시간으로 10월 12일(금) 터키 법정은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명령했다.

브런슨 목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이즈미르 서부 도시를 떠나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 사실을 알리며 집에 곧 올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가 화요일 좁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15일 터키 반정부 단체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비상사태 하에 2016년 10월 터키 당국은 브런슨 목사를 쿠르드 노동자당(PKK) 불법 테러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터키 법정은 공개되지 않은 거짓 증거를 기초로 앤드류 목사에게 35년 형을 언도하였지만, 터키 검사는 지난 2년 간의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였다. 앤드류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기독교계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정부는 앤드류 목사의 석방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터키의 긴장을 높이며 터키를 정치적, 경제적 수렁에 빠뜨렸었다. 브런슨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 날은 우리 가족이 기도했던 날이다. 미국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어서 기쁘다”며 “우리 가족 모두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영광”이라며 “그는 심한 고난을 겪었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기로 터키와 협정을 맺은 바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목사는 그의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터키에서 20년 이상 살았으며 이즈미르에서 성도수 25명 정도 되는 소형 교회를 이끌었다.

케냐 근무 중이던 기독교인 교사 2명, 테러로 사망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케냐에서 근무 중이던 기독교인 교사 2명이 소말리아 극단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지역인 만데라이스트(Mandera East)에 소재한 아바리아 고등학교(Arabia High School) 교사 존스톤 오쿠무(Johnstone)와 사이먼 웨케사(Simon Wekesa)이다. 이 밖에 3명은 심각한 부

상을 입었다. ICC는 “이들이 그 지역의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틴 카무투(Martin Katumu)는 ICC와의 인터뷰에서 “끔찍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의 동료들을 잃게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가 오랜 시간과 전문성을 들여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사랑하면 잘 배우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랑은 배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면 잘 배우게 됩니다. 제게 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느냐고 묻는다면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은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글 속에는 복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 배움의 원리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면 잘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특별히 어떤 과목을 좋아했다면 그 과목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스승을 통해 가장 잘 배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이나 주제를 깊이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그 대상과 주제를 늘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면 신비롭게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질문하게 됩니다. 탁월한 질문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언어도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 준다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기억합니

다. 기억은 두뇌의 문제라기보다 사랑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성경 암송의 비밀도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을 잘하는 분들은 새롭게 기억하기 원하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련을 맺어가며 기억하는 것을 돕니다. 기억의 문제를 짧은 사랑의 공식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는 영어를 사랑하는 데 영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고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는 좋아하는 경지를 넘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지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배우는 내용이 즐겁지 않다면 반복하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진지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즐거운 것은 오래갑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재미가 있으면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재미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미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죄의 쾌락은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쾌락에 호기심을 갖

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의 쾌락을 반복하게 되면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고티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대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어니스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흠모하며 자주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변화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를 점점 닮게 됩니다. 사랑처럼 강력한 변화 촉진제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사랑의 절정은 나눔에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배워서 남 주기 위해 배우십시오. 배워서 나누는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중에 우리는 더욱 잘 배우게 됩니다. 더욱 깊이 배우게 됩니다. 더욱 풍성한 배움에 이르게 됩니다. 배운 것을 나눌 때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나누십시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나누십시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인간의 영혼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사의 합리적, 비합리적, 초합리적 지평

철학자 폴 리코어(Paul Ricoeur, 1913-2005)의 책 「역사와 진리」(History and Truth)를 다시 읽기 위하여, 35년 전에 땀을 흘리면서 읽던 책을 펼쳤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상가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철학의 정상에 섰던 리코어는 지금도 나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1차 대전에서 아버지를 잃고 2차 대전에서 독일군에 포로로 잡혔던 프랑스인 리코어가 2차 대전 후에 목상했던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성찰은 오랜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세상을 산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그는 장 폴 사르트르와 같은 무신론자나 엠마누엘 무니에나 자크 엘필과 같은 유신론적 철학자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며 시대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했다.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가리지 않고 대화를 했으며, 더욱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육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히며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는 「역사와 진리」라는 논문집을 통하여 역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게 정리한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그는 역사 속에 합리적 지평, 비합리적 지평, 그리고 초합리적 지평이 있음을 각인시켰다. 그는 독실한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았으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의 합리적 지평이 있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역사에는 여러 다양한 지평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첫째는 진보(progress)로 설명되는 역사의 기술적(技術的)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볼 때 현대는 엄청난 지식의 축적과 확대가 있었고, 그것이 과학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평이 역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역사에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

그가 직접 겪은 두 번의 세계대

전과 수많은 살육의 역사를 조망하며, 그는 역사에 합리적 지평과 비합리적인 지평이 동시에 존재함을 말한다.

가장 계몽된 서양이 겪었던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과 살인을 통하여, 그는 합리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야수와 같은 죄악과 허물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았다. 마음의 견지 즉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거의 아무런 내면의 발전도 이루어냈다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의 교만과 범죄와 치유되지 않는 사악함은 성경의 안팎을 막론하고, 교육의 정도와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울퉁은 안티고네를 죽인 크레온 왕이나, 자신의 딸을 죽여 제사하고 트로이 전쟁을 떠난 아가멤논이나, 충성스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탈한 다윗, 그리고 자신의 손주 수십 명을 모두 죽이고 여왕이 된 유다의 왕후 아달라 모두는 욕망과 죄악을 향하여 넓게 열린 타락한 인간 본성을 드러냄에 예외가 없다. 인간성은 진보되지 않았다. 그것은 윤리적 모호함(ambiguity) 속에 남아있다. 그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고, 인간은 죄는 십계명을 포함한 말씀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리코어는 역사에 초합리적인 지평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을 향하

여 열려있다. 기술적으로 진보해왔지만 윤리적으로 더욱 품성이 피폐하여지는 인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하나님의 기적적, 초합리적 개입이 있다는 점이 역사를 유지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다. 역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종결된다. 이 때문에 역사는 우리들이 겪는 그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역사는 그러므로 신비(mystery)이다. 역사의 세 번째 지평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뜻에 대한 성취가 기대되는 신비적 차원이다.

어거스틴이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divine mystery of history)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라. 우리 성도의 삶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비관적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미래에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낙관이 자리하기, 이를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pessimistic optimism)로 표현한다. 어둠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고, 절망스런 현재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인 반전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교향악”(divine symphony of history)이기에, 고난의 금실로 영광의 작품을 수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 스스로의 절망과 포기로 거부할 수 없다.

척박한 이민 속에 33주년을 맞이한 충현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신비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향한 결코 쉽지 않은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과 섭리적 도우심을 굳게 믿는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스스로 절망할 권리가 없다.

캐나다광림교회(밴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1.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 (M Div.) 졸업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4. 연령 만 55세 미만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소속교단 재직증명
6. 목사안수증
7. 추천서(목회자) 2개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十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 Fax: (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21세기의
민중의 명가

부목사 청빙

기쁨의 교회는 72년의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교회로,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Korean Diaspora 교회를 섬길 비전을 품은 1.5세, 2세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담당사역-소속	기쁨의 교회 부목사로 포항노회 선교목사로서 동역, 한국인 교구 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역 및 포항의 타기관 (한동대, 포항국제교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과의 협력 사역 등
청빙 자격요건	1)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1.5세 또는 2세 Korean American 목사 2) 미국의 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정식 인가를 받은 타교단 목사 3) 30-40대의 나이, 배우려는 마음과 선교적 열정을 가진 분 4)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학위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사본 4) 설교 동영상 파일 1개 첨부
제출방법	2018년 10월 29일(월)까지 samuel5860@hanmail.net
참고사항	1) 서류 제출은 E-mail로만 접수합니다. 보내주시는 서류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서류 심사 후 전화나 E-mail로 연락 후 인터뷰 합니다. 3) 청빙, 사역과 관련된 질문은 E-메일로 주시면 답해 드립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입니다.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교회교육, 아이들 성향과 재능 따라 다른 방법으로”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진로적성 교육전문가 김진 대표(上)



서울 서초동 김진교육개발원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 대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태초부터 심어주신 성향과 재능을 발견하면 자녀 교육은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떤 성향과 재능을 갖고 있느냐를 자녀와 부모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다. 진로교육 전문가 김진 대표(김진교육개발원)는 20년간 1만 8,000여명을 일대 일로 상담하면서 얻은 자료와 임상 진단을 결합해, 진로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 등 기존 적성검사들은 검사 후에도 자신의 재능과 성향을 고려한 직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맞지 않는 성향유형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옥타그노시스(Octagnosis)검사’는 인간의 사고 유형을 사실적·추론적·고정적·창의적·분석적·융합적·수직적·수평적 등 8가지(Octa)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성향 유형을 15가지(Gnosis)로 분류했다.

김진 대표가 집필한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생명의말씀사)〉에서는 소통형, 창조형, 실용형, 운동형, 규범형, 추리형, 제작형, 생명형, 분석형, 관찰형, 원리형, 봉사형, 교육형, 복합형, 진취형 등 15가지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안내해 준다. 각 성향별 특징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재능과 직업, 그리고 학습법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신앙교육법과 모델이 되는 성경 인물들을 제시해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김진교육개발원을 직접 찾아 검사나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에는 옥타그노시스 검사와 15가지 유형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듯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에 모두 쏟아놓은 것은, 돌연 찾아온 난독

증으로 입시에 실패하고 괴로워하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개인적 신앙과 연관이 있다. 김 대표는 교육 전문가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하다.

김진 대표는 “수많은 진로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면서 재차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각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명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면 행복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이야기.

-15가지 성향은 선천적인가요.

“시편 139편 13절과 이사야 44장 2절,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서는 모태에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담아 놓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개인의 성향과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유전자 속에 심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향과 재능은 변하지 않지만, 살면서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15가지 재능 및 성향과 아이의 꿈이 일치하는 편인가요.

“약 90%에 달하는 아이들이 일치성을 보였습니다. 진로적성 컨설팅을 하고 나면 제게 하는 말이 ‘이거 예전부터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입니다. 나머지 약 10%의 아이들은 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아이들이라, 이때부터 진로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유전적 성향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도 진로 컨설팅을 통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교육할 때 모든 교육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게 풀립니다.”

“각 유형별 신앙교육법과 성경 인물까지 소개하셨는데, 15가지 유형 중 제일 믿음이 잘 심어질 것 같은 유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을 가깝게 느끼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규범형에게 그런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원래 지키는 걸 잘 하나요. 신앙생활이 평탄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음에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면, 소통형입니다. 전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니까요. 좀 더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은 아무래도 봉사형입니다. 헌신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유형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전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5백여명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진로교육은 전도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자녀교육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신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응답을 받고 책에 넣은 것이 각 성향에 맞는 신앙교육법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예전에는 말씀 암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 빠지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아이 성향별로 신앙을 맞춰서 교육해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운동형은 실천을 돕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통형은 늘 떠돌고 즐거운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추리형은 상상을 잘 하지만, 의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불신이라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교육한다면 신앙이 발전할 것입니다.

유형을 딱 15개로 정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라는 학문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도 구분하기 위해 각자에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해 이루실 소명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교육을 통

해 그 사명을 발견하다 보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신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웃을 용서하자’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과 사랑하고 화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와 서로 화해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많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갈등이 해결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 많은 이론과 실천 연구의 결과물을 책에 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전도 사역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교회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킨다면,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육으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회가 어린 자녀를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에는 관심이 있는데, 청년들은 이끌어줄 리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긴급한 직업 문제, 전공과 정체성 문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을 집필할 때, 교회학교와 가정에서 매뉴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썼습니다. 그래서 책 뒤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성향 체크리스트와 각 성향 유형에 대한 설명, 성향에 맞는 직업과 사역분야 그리고 학습법과 신앙교육법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위에 이러한 실천적 방법들을 실행하는 것이겠지요.”

-교회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크게 획일화된 교육방식,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전문성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방식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역자가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가



책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김진, 생명의말씀사, 344쪽, 18,000원

르치는 점입니다. 먼저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고 신앙교육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을 먹더라도 각 아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먹어야 하고, 사역자, 교사들이 각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이 다르고 신앙의 접근법이 개별적 특성마다 다름을 알고 있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서도 내면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승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막상 그런 변화를 실천하는 데는 약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만, 교회는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선교지’이며,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으로 갈급한 나머지 믿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고민을 교회교육 차원에서 배려하고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다 소멸의 길을 걸은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초등 교육은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중·고등학생과 청년층은 이것만으로 질적·양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학생의 진로적성, 부모의 교육현실, 학습 등 전문성을 통해 성경 말씀과 함께 도와야 합니다.” 김신의 기자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11회 정기연주회



단장
염규서 목사



이사장
데이빗리 목사



지휘
이재경 목사



피아노
헬렌박 집사



오르간
샤론리 사모

특별출연





오렌지미션콰이어 Bliss Youth Orchestra 에버그린여성합창단

2018. 10. 27.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김근수 목사 323.620.6400 / 행사총괄: 백선용 목사 213.550.8778

*** 기념품과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목회 전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2)- 최종인 목사



평화성결교회 담임 최종인 목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며 깨닫는다. 특히 좋은 신앙인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도전 받는다. 한 시간의 간증이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되는 삶이 필요하다. 실천적 삶이 없는 성도들의 간증은 공허하다. 신앙생활은 실존이다. 신앙은 현장에서 실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현대교회가 비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천이 없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 때문이다.

목회자는 실천가이어야 한다. 실천력이 없는 목회자의 모습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목회자가 목회 현장을 품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회자는 늘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노력하고 도전하는 최종인 목사를 만났다. 한국교회의 노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 목사는 교회 노령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한다. 이미 좋은 결과들을 내어 놓았고 점점 더 의미 있는 목회가 기대되는 최종인 목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가 꿈꾸는 내일을 만났다.

성결교 목사로 자라다

최종인 목사는 모태 성결인이다. 모태 신앙인인 최종인 목사는 온 가족과 더불어 고향인 정읍성결교회에 출석했다. 믿음으로 사시는 자애로운 부모님, 그리고 늘 사랑과 격려로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형님과 누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지금도 가끔씩 꺼내보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초등학교때 서울로 이주해 와서는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를 출석하였다. 서울 대형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중고등부 학생회 신앙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키웠다. 체계화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당시 활발했던 학원 신앙 운동을 경험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 진학을 했다. 큰 형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결대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형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학교에 진학한 이래 지금까지 신학과 더불어 살아간다. 졸업 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중앙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문학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 미디어선교를 위해 40세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2004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 대학원에서 선교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성결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회와 선교'를 가르치고 있다.

교회를 세우는 목사

최종인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다. 물론 현재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말은 아니다.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개척했다. 먼저는 성결대학교 재학중에 큰 형님의 제안으로 서대전 충남방적공장 앞에서 푸른초장교회를 개척하여 산업선

교를 시작했다. 미숙한 전도사로 개척을 했다. 시행착오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보람된 시절이었다. 공군 군종목사로 처음 배치 받은 곳이 가평 화악산이었는데 교회가 없었다. 부임하는 날 가평터미널에서 만난 두 하사들과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했다.

군종 목사로 전역 후 사당동에 시민교회를 개척했다. 사당동은 전혀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하고 찾아가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달동네 목회였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어렵게 세운 시민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떨린다.

유학시절 만난 감리교 목사이며 의사인 강신욱목사님(현, LA 생수의강교회 담임)의 초청으로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오하이오대학생선교회'를 개척한다.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강신욱 목사님의 도전에 응하며 시작한 사역이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2, 3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대형 캠퍼스로 한국인 유학생들도 천 여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 유학생들 가운데 전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는 학생도 있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같은 유학생으로 생활하며 전도했다니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유학생 교회가 현재 컬럼버스 벤엘교회가 되어 아직도 많은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돌아보면 참 보람찬 시절이었다.

담임목사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최종인 목사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쳐갈 즈음 서울의 평화성결교회의 부름을 받는다.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공부를 마치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과 목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꿈을 꾸던 최 목사는 내심 망설임이 없었지만 담임목사로 부르심에 순종한다. 2000년 9월 첫주일부터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평화성결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 전임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공석이 된 담임목사를 맡는 것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평화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를 건축했고, 창조적이고 능률적인 현장 중심의 목회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고 있다. 최 목사는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다양한 목회사역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종인 목사의 목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심방목회다. 언제 어디서나 심방을 최우선으로 알고 심방한다. 심방을 통해서 영혼은 섬기고 돌보는 것은 기쁨이자 보람이다. 둘째, 기도목회다. 자신이 기도에 힘쓴다.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도운동을 주도한다. 아울러 교회 안에 다양한 기도 그룹을 만들고 기도회를 연다. 셋째, 정신건강목회다. 성도들의 육적, 영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바탕이 되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목양한다. 넷째, 노인목회다. 교회안의 노년층의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통해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이 쉽게 앓을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한 강의와 시리즈 설교를 통해 보람된 결과도 있었다.

시니어 교육목회 적용과 실천

최종인 목사는 시니어 교육목회를 한다. 최종인 목사의 시니어 교육목회는 노년층이 많은 평화 성결교회 현장과 최 목사의 특별한 경험이 만난 산물이다.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유학시절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과정의 수학 경험을 가진 최종인 목사가 노년층이 많은 평화교회를 섬기면서 고민과 적용 그리고 실천의 결과다. 20여년 가까이 시니어 삶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학교를 진행해 왔다. 2005년에는 한국교회 최초로 '죽음예비학교'를 열었고, 위기가정상담학교, 중년행복학교를 진행했고, 시니어 돌봄 사역, 임환자 돌봄사역, 불안극복 클리닉, 장례사역지역서 발간, 그리고 사별가족돌봄사역 등을 창의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물론 매 학교들과 세미나 등에는 소책자, 팸플렛 그리고 교재 등등의 결과물들이 있다. 후배들과 동료 목회자들에게 사역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최종인 목사는 꿈꾸는 목사이기도 전하는 목사다. 신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한 것이나, 시민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할 때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나 유학중에 학위를 중단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일련의 삶의 과정이 꿈과 도전의 연속이다. 그는 지금도 꿈꾸며 기도하고 도전하는 청춘의 목사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최목사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최 목사는 섬겨야 할 분야가 많다. 섬기는 교회는 물론, 속한 교단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 최목사의 기도다. 둘째로 "섬기는 평화교회가 성숙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평화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중형교회다. 지난 50년은 감사로 정리하고, 미래 50년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4가지 교회의 비전을 갖는다. 성결한 성도, 스마트교회, 사역자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셋째는 섬기는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최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사역자, 전도사역자, 선교사역자, 실버사역자, 문화사역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성도들을 구경꾼이 아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 비전 중에 하나다.

넷째는 선교의 동력을 품기를 기도한다. 최 목사는 다양한 선교 현장을 기도하며 마련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 실버세대를 위한 선교, 선교사 케어를 중점으로 하는 선교, 선교학교와 기도회선교, 해외선교 센터를 지어 봉헌하는 비전이다. 최 목사는 10년 후 20년 후의 교회와 자신을 생각하며 설렘이 있다. 지금까지 꿈꾸며 기도하는 일들이 실현되어 왔었다. 지금 꿈꾸며 기도하는 일들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최 목사는 60대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설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한다. 미래의 자신과 평화교회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다. 실천력이 없는 몽상이 아닌 도전하는 꿈으로 시니어들을 섬기며 전진하는 최목사의 행복한 목회에 박수로 글을 맺는다.

강태광 편집위원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일시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8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HEAL 2CHRON7:14
OUR LAND

우리의 오랜 기도 응답으로 미국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대 부흥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계선교와 세계질서 유지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11월 중간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드리는 은총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 | | | | | | | | | |
|-----------------|--------|--------|--------|--------|--------|--------|--------|--------|
| 고문: | 김인식 목사 | 김춘근 교수 | 박희민 목사 | 송정명 목사 | 이정근 목사 | 한기형 목사 | | |
|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 | | | | | | |
| 공동대회장: | 강준민 목사 | 고승희 목사 | 고태형 목사 | 권혁빈 목사 | 김경진 목사 | 김기동 목사 | 김기섭 목사 | 김지훈 목사 |
| | 김태형 목사 | 김한요 목사 | 노창수 목사 | 민경엽 목사 | 민승기 목사 | 민종기 목사 | 박성규 목사 | 박용덕 목사 |
| | 박은성 목사 | 백정우 목사 | 신승훈 목사 | 안동주 목사 | 엄규서 목사 | 윤대혁 목사 | 이호우 목사 | 정영희 목사 |
| | 지용덕 목사 | 진유철 목사 | 최홍주 목사 | | | | | |
|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 | | | | | | | |
| 공동준비위원장: | 이 서 목사 | 샘 신 목사 | 안병권 목사 | | | | | |
| 사무총장: | 양경선 목사 | | | | | | | |



2014 Verizon Wireless Amphitheater Irvine



2015 & 2016 Anaheim Convention Center



2017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주관: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남가주전지역교회협의회/목사회/여성목사회/장로협의회, O.C.평신도연합회, 미주성서화운동, CMF, 미스바기도운동, SOON Movement, HYM, Zion Mountain Foundation, JAMA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CHTV18.7, CTS기독TV, CGNTV, GBC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기독교방송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714) 446-6200 www.gracemi.com

HANMI PIANO

한인교회에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www.hanmipiano.com



The CF Series
CFX



교회에 적합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YAMAHA 피아노를
Up to 75% Off 된
특별한 가격에 드립니다.

BIG SALE

교회 피아노 Tuning 서비스가 필요 하시다면
한미피아노에서 **40년 Experience** 이상의
최고 **Technician**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10월 한달 동안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Grand Piano Tuning **\$150 → \$80**
Upright Piano Tuning **\$100 → \$60**
제공해 드립니다.



SILENT Piano™



Clavinova®

* Tuning 외 다른 수리가 필요할 경우 파트값만 받고 Free로 수리 해드립니다.

교회예배 찬양팀용 YAMAHA KEYBOARD



**교회 예배용
KEYBOARD**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등 새벽기도, 금요일예배,
구역예배 및 가정예배에 피아노 반주가 필요하지만,
연주자 없이 찬송가 연주가 되는 **YAMAHA DISKLAVIER**
신제품 피아노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신 후 많은 호응과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 연주 가능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좋은 기회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한미피아노가
한인교회에 드리는 특별한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신뢰·정직을 약속하는 한미피아노
피아노와 함께한 45년의 잔처럼
한미피아노는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함 없습니다.

YAMAHA **disklavier®**

알림

한미피아노는 남가주에서 **유일한 한인 야마하 공식 딜러**
(YAMAHA PIANO AUTHORIZED DEALER)입니다.
공인딜러가 아닌곳에서 YAMAHA피아노를 구입하시면
YAMAHA에서 제공하는 10년 FACTORY WARRANTY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인 유일의 YAMAHA 공인딜러
한미피아노

지금 바로 한미 피아노에 전화로 문의, 예약해 주세요!
▪ **LA T.(213)483.8949**
317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 **OC T.(714)891.5551**
794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